

한국유가공협회에서는 우유소비촉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의 글솜씨 향상을 위해 지난 85년부터 매년 “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아홉번째인 93년도에는 전국에서 총2천2백82편이 응모, 새싹회(회장 윤석중)에 심사를 의뢰하여 최우수1편, 금상2편, 은상5편, 동상20편, 장려50편등 총78편을 엄선하여 상장과 장학금(장려상은 부상)을 수여했다.

본지는 동상이상 28편을 4회에 나누어 게재한다. 이번호에는 동상 9편을 실는다.

동상

## 「우리 선생님」

이 송 이  
(대전태평국교 6-12)

우리 학교는 오래전부터 우유급식을 했다.  
하지만 난 그 때마다 우유신청을 하지 않았다.

정말 우유라면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그런데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다.

난 우유만 먹으면 구토를 하고 배탈이 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엄마께서는 내가 이러한 줄을 아시면서 언제나 말씀하셨다.

“송이야, 제발 좀 우유를 먹어봐, 대체 네 몸은 어떻게 맞는 건지…….”

너 현정이 좀 봐. 우유 잘 먹으니까 키도 크고 얼마나 좋아!”

이 말씀은 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소리였다.

그러나 난 내 체질을 알기 때문에 우유 한 방울도 먹지 않았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피해도 많았다.

키가 작아 언제나 앞자리, 몸도 허약해 햇빛에서도 오래 견디질 못했다. 그런 허약한 몸을 어느 정도까지만이라도 참아내려고 했다.

그러던 중 5학년이 되었다.

난 변함없이 앞자리에 앉았다.

그래도 공부는 뒤지지 않을 만큼 해서 반장이 되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반장이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온갖 곤욕을

치러야 했다.

다른 아이들 보다 빈병이나 폐휴지를 많이 가져와 재활용의 모범을 보여야 했고, 그리고 너무나도 참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

울어야 했을 정도였다.

그건 우유급식.

선생님께서 3월분 우유 신청서를 주셨다. 난 그 때 그 신청서를 찢으려고 하던 차였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요번 우유급식 신청서를 받았는데, 여러분 모두 우유를 먹도록.

선생님도 우유를 아주 좋아하는데, 우유는 우리 어린이들의 성장을 고르게 해주는, 바로 완전식품이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유를 먹어.”

정말 그 때 내 마음.

분통이 터지고, 울음이 나왔다.

그러나 혹시 체질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우유를 안 먹어도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조용히 선생님께.

“선생님, 저어 우유 안 먹으면 안 될까요? 제가 우유를 먹으면 토하고 탈이 나거든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선생님께서는 “넌 더군다나 반장이면서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하니? 우유는 조금씩 먹으면 괜찮을 거야.”

난 오히려 꾸중만 듣고 말았다.

집에 가서 우유 신청서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엄마께 갔더니,

“어이구, 송이가 웬일이야! 우유 신청서를 그대로 가져오고…….”

난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해져서,

“선생님이 먹으래! 누가 먹고 싶어서 먹나!”

정말 신경질이 났다.

그러나, 그래도 돈 내고 먹는 건데 꼭 참고 먹기로 했다.

그 다음날, 지옥은 시작됐다.

눈을 꼭 감고 쭈욱…….

속이 울렁거렸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 모두 먹고 있었다.

꼭 참고 말이다.

그렇게 먹고 나서, 또 한 절차를 밟아야 했다.

우유팩 씻기,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였다.

그것도 선생님의 명령.

우리반은 이런 식으로 우유를 먹었다. 그런데 회한한 일이 일어났다.

작았던 내 키가 몇 달사이 무려 10cm나 컸던 것이다.

눈 꼭 감고 먹었던 우유가 날 이렇게 만든 것이다.

그 때 난, 뭘 듯이 기뻐다.

허약했던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 것이다. 난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그러나 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의 건강만 강조했던 우리 선생님 덕분이였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통상

# 나의 건강과 우유

김혜민  
(강원삼척국교 5-6)

얼마전의 일이었습니다.

나와 내동생이 같이 피아노학원에 갔습니

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동생 민하가 혜민이보다 더 크겠네. 혜민이는 밥을 많이 먹어야 겠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부끄러워 말도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서도 어머니께서는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혜민아 이제 동생 민하가 너보다 더 크겠다.”

사실 나는 동생보다 몸이 약한 편이라 어른들로부터 자주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이런 말을 하면 화가 납니다.

그렇기때문에 요즘은 음식도 골고루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유를 많이 먹으라고 하십니다.

우유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자라나는 어린이에게는 가장 좋은 식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단백질이 부족하면 잘 자라지도 못하고 질병에도 걸리기 쉽다고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유를 싫어합니다.

언젠가 신문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은 우유를 하루에 3~4컵 정도 먹어야 한다고 신문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너무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우유를 하루에 조금밖에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도 우유를 받지만 집으로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우유를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유를 코코아에 타 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동생은 흰 우유라도 잘 먹습니다.

그럴때마다 어머니께서는 우유에 코코아를 타서 먹는것 보다는 그냥 흰 우유를 많이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슈퍼에서도 딸기우유나 초코우유, 바나나맛 우유등 많은 우유가 우리들의 입맛을 돋궈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유를 마실 때 마다 나는 달콤한 그맛에 끌리고 맙니다.

학교에서도 매일 흰 우유보다는 딸기맛이나

초코맛으로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루에도 2~3개씩은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자꾸만 단맛에 나는 우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쓴 맛은 우리 몸에 이롭다”라는 옛말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물론 단맛이 나는 것이 우리 몸에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렸어부터 너무 단맛에 익숙해지다 보면 어른이 되었을때 달지 않은 음식을 잘 먹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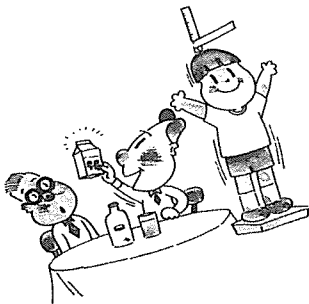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그런 짐을 염려해서 어렸어부터 너무 단것 만을 찾는 것보다는 어떤 음식이든지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잘 먹으라고 하십니다.

특히 우유는 우리 어린이들 뿐만아니라 노인들에게도 좋은 식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것을 생각해 볼때 우유는 정말 좋은 식품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낄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우유가 한없이 고맙기만 합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우유를 많이 먹어서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어린이가 되어 어른이 되었을때 훌륭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가 되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동상

## 고마운 우유

박 소 은

(서울논현국교 3-4)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저녁 밥을 먹고 난 뒤 텔레비전을 보는데 갑자기 목이 말라 부엌에 가 보니, 우유가 내눈에 띄었습니다. 식탁 위에 있는 우유 한 컵을 마셔보니 맛이 참 좋아서 우유를 매일 먹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셨지만, 우유를 먹는 습관이 들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전 저도 모르게 친구들보다 키가 더 커졌습니다. 어머니께선 무엇이든지 잘 먹어서 키가 커졌다고 하셨지만, 우유를 먹기 전에는 땅꼬마 같았는데 잘 먹는다고 키가 커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키가 우유 때문에 커졌다면 우유에게 고맙다고 백번이상 절을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아이들보다, 제가 더 키가 큰 것이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우유를 먹기 전에는 키가 너무 작아 어머니께서 밥 좀 많이 먹으라고 타이르셨고, 밥을 먹여 주신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유를 마시고 난 뒤에는 타이르지도 않고 밥을 먹여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전 우유가 참 좋다는 것을 깨닫고 계속 마셔 왔는데, 그 전에는 밖에서 많이 놀아 얼굴이 검었었는데, 우유를 마시니 얼굴 색깔도 우유처럼 하얗게 되었고, 썩스럽지만, 얼굴도 예뻐진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선 제가 유치원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미스코리아님 유치원 공부 잘 했어요?”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

늘도 어머니께서,

“미스코리아님 학교 공부 잘 하셨어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편으로는 부끄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유를 먹고 예뻐졌으니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전 우유를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유를 먹는다고 나빠지지 않고 장점만 있기 때문입니다. 전 이렇게 좋은 우유를 지금까지 마시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은 전부 우유를 좋아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출근하실때 한 컵, 어머니께서는 출출하실때 두컵 정도, 언니는 공부할때 세 컵, 난 학교 다녀와서 한 컵, 전부 우유를 좋아하여 키가 좀 큰 편입니다. 또 언니 빼고는 얼굴도 좀 하얗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우유가 없었더라면 전 아직 땅꼬마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또 이빨도 튼튼하지 않고, 얼굴색은 검정색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난 우유를 좀 싫어하게 된 것처럼 잘은 마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떨때 우유가 담긴 컵을 두고 먹느냐 마느냐 말씨름을 합니다.

“우유를 먹고 더 예뻐져야지.”

“아이 뭐 이까짓것 마시지 않으면 어때?”

하며 우유컵 반대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하지만, 우유는 내 가장 친한 친구와도 같습니다. 또 우리 몸에도 좋고요. 어디에나 좋은 우유를 마실 땐 웬지 몸이 상쾌해지는것만 같고 아팠던 몸이 다 나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데 좀 졸려 우유를 마시는데 졸음이 싹 없어지는 것 같아 우유의 고마움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우유는 소의 젖에서 저한테 왔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소가 엄마 젖을 먹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소의 젖에서 공장으로 가 깨끗하게 만들고 포장한 뒤에 가게로 넘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키크고 예뻐지고 건강해지는 우유를 사서 먹는 것이 됩니다. 우유를 먹으면 키도 커지고 건강해지니까 우유를 많은 사람들이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유는 우리 몸에 참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빨도 튼튼히 해주며 건강에도 좋

고 또 키도 커지고 예뻐지고……. 전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며 고마운 우유를 언제나 마실 것 입니다.

동상

## 우유 먹기 시합

김지선

(광주운암국교 5-11)

“싫어, 싫어 안 먹을 거야.”

“현아야, 우유 먹어야 크지, 너 우유 안 먹으면 영화보다 더 작아 진다. 그러니까 먹어.”

“그래도 싫어, 맛이 없단 말이야.”

아기뻐 하루에도 몇병씩 먹어대곤 하던 우유를 좀 크고 나더니 통 먹으려 하지 않는 동생이다.

우유를 먹으려하면,

“나, 배 아픈단 말이야.”

하고 입을 가리며 도망쳐 버린다.

몸이 약하고 키도 잘 크지않아 늘 걱정한 동생에게 우유를 잘 먹게 해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할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던 끝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늘 예뻐지고 싶어하는 동생의 심리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현아야, 너 백설공주처럼 하얀 얼굴이 예쁘니, 부시맨처럼 검은 얼굴이 예쁘니?”

“하얀 얼굴이 예쁘지 언니는 그것도 몰라?”

“그래 백설공주는 우유를 많이 먹어서 얼굴이 그렇게 하얗대, 너도 우유 많이 먹으면 얼굴도 예뻐지고 키도 쑥쑥 커서 아빠만큼 커진다.”

한참 인형 놀이에 열심이던 동생이 살짝 내

곁에 다가 오더니

“언니, 진짜 우유 먹으면 백설공주처럼 얼굴 하해져? 위층 영화보다 키도 더 커질 수 있어?”

하고 묻는다.

“그럼, 우리 현아, 지금보다 더 예뻐지고 키도 쑥쑥 커지지”

한참 그렇게 달래고 얼르면 동생은 어느새 우유컵 두개를 식탁에 가져다 놓는다. 그리고는

“언니, 나랑 우유 먹기 시합 하자.”

하며 컵에 우유를 따라라고 조른다. 동생과 나의 컵에는 하얀 우유가 채워지고 동생은 컵에 빨대를 3개씩이나 꼽는다. 동생의

“준비. 시-작!”

하는 소리와 함께 동생은 꿀꺽꿀꺽, 나는 컵에 입만 대고 동생의 우유컵이 어느 정도 비기를 기다린다.

얼마후 입에서 빨대를 빼낸 동생이 반쯤 남아 있는 내 우유컵을 보고

“야! 내가 이겼다.”

하고 기뻐 소리친다.

동생의 앞에는 어느새 비어진 컵이 놓여 있다.

동생은 얼른 방으로 들어가 거울을 보고 나온다.

“언니, 내얼굴 하해 졌지?”

하며 자기 얼굴을 내민다. 또

“언니, 내키 커 졌지? 나랑 키 재봐 응”

하며 나에게는 무릎을 구부리라고 하고 자기는 까치발을 하고 서서

“내 키가 더 크지?”

하며 우겨 댄다.

그런 동생을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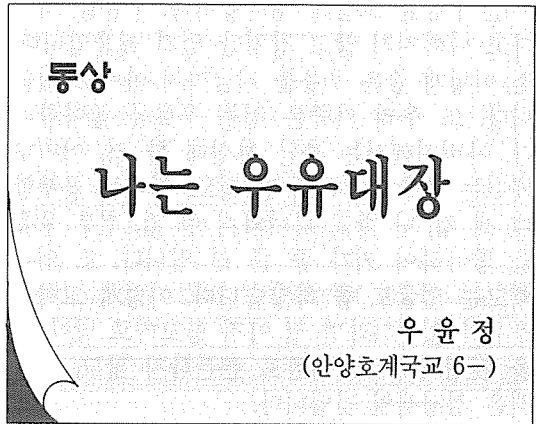
“응. 우리 현아가 우유를 잘 먹으니까 언니보다 더 커버렸구나.”

하고 웃으면서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덩달아 맞장구를 쳐 주신다.

날마다 이어지는 동생과 나의 우유먹기 시합에 우리 집은 웃음꽃이 피고, 내 동생은 거울을 보며 백설공주처럼 얼굴이 예뻐지고 아

버지 처럼 커질 날을 기다린다.

나는 또 다른 아이들처럼 내 귀여운 동생이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로 자라길 마음속으로 빈다.



“윤정아, 키 크는 비결이 뭐니? 나 좀 가르쳐 주라.”

키가 작은 친구들은 나와 같이 앉게 되면 꼭 이렇게 묻곤 한다.

그 때마다 난 “뭐든지 잘 먹어서 그런 가봐.”라고 대답 한다.

국민학교 6학년 초 낯선 친구들이 많았다.

나는 자기소개를 할때 “제 별명은 「우유」입니다.”라고 말해서 박수를 받았던 적도 있었다.

여학생의 키가 170센티미터 라면 누구든지 놀라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 그 여학생이 바로 나이다.

키 때문에 손해를 본 경우도 더러 있긴 하지만 이익을 본 경우가 더 많다. 유치원에 다닐 때에도 키가 커서 공공요금을 낼때면 국민학생 요금을 내야했다. 하지만 1학년때 부터 학교 선생님께서 다아시는 나 여서 그런지 그 점만은 정말 키가 큰 것이 마음에 든다. 다시 생각해도 우유는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영양소 이다.

학교에서는 매일 우유급식을 한다.

하루도 빠짐없이 우유급식을 하는 나는 휴

일이면 집에서도 우유를 마신다.

“청량음료 보다는 영양가도 높고, 몸에도 좋은 우유는 완전식품이라고 할 수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니 덕택에 매일 우유 마시는 것이 생활화 된 것 같다.

몇년 전 이었을 것이다.

우유가 잘 팔리지 않아 그냥 버려진 일이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웠고, 아깝기도 했다.

어렸을 때의 일이지만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우유에 대한 나의 관심 또한 높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유를 무척이나 좋아해서 인지는 모르지만 별명도 우유이다.

물론 우유를 좋아해서 붙여진 별명이기도 하지만 특이하게도 나의 이름 때문일 것이다.

내 이름 우윤정에서 우윤의 윤 받침 ㄴ을 빼면 우유라는 글자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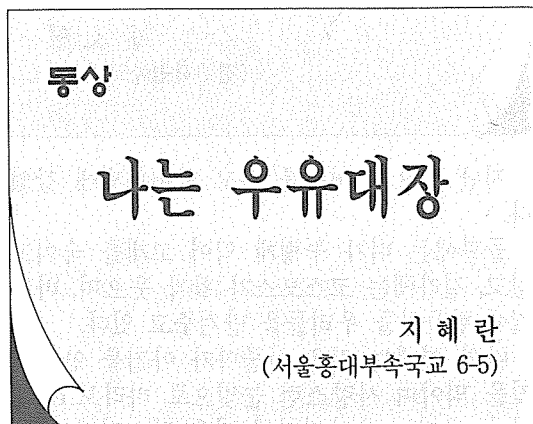
내가 잘 모르는 다른반 친구들이 나의 별명이 우유라는 것을 아는 걸 보면 우유라는 별명이 듣기 싫지는 않다.

사람들은,

“김치 없이는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라고 하지만 나는,

“우유 없이는 못 살아. 정말 못 살아”이다.



“야, 이 땅꼬마야!”

“뭐라구? 잉.”

땅꼬마.

코흘리개시절 내 별명이었다. 나는 내또래에 비해 키가 작은 편이어서 그런 놀림을 받아야 했다.

그럴때면,

“엄마, 자꾸 애들이 땅꼬마라고 놀려요. 잉.”

하고 어머니께 투정을 부렸다.

“그러게 우유 좀 먹으라지 않았니? 우유가 얼마나 좋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데...”

“또 그 소리. 우유를 먹으면 꼭 토할 것 같단 말이에요.”

“혜란아, 네가 친구들보다 키가 작고 몸이 약한 것은 원래 그럴 수도 있지만 엄마가 보기엔 우유를 자꾸 피하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단다. 자, 우유 한컵 마셔보렴?”

눈을 딱 감고 마셔 보았으나, 하나도 맛있지 않았다.

“헛, 엄마는 이까지 우유가 얼마나 몸에 좋다고 꼭 물에다 하얀 물감 풀어 놓은 것 같던데...”

그때, 나는 키도 작을 뿐더러 통통하긴 하지만 몸이 약해 특하면 병에 걸렸다. 그것은 편식이 좀 심하여서 였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로 고집이 세었다.

우유를 맛있다고 별척별척 잘도 마시는 친구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잘 먹는지 의문이 였다.

드디어 1학년이 되었다. 그런데 1학년부터는 매일 급식빵과 우유를 먹게 되었다.

친구들을 따라 먹어 보았지만 도무지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다. 그래서 먹기도 했지만 집으로 슬쩍 가져오곤 했다.

그러기를 4년, 어느덧 4학년이 되었다.

여름방학이 되어 어머니 친구분 시골댁으로 우리 가족은 향했다.

도회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라 싱긋한 풀냄새와 시골의 특유한 향기가 풍겨왔다.

마침 그 곳에서는 젖소를 기르고 있었는데 젖소와 함께 내 눈앞에 펼쳐진 농촌 풍경은

굉장히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그 곳의 아는 아저씨께서 젖소의 젖을 짜고 계셨었다은기념으로 즉석우유맛 좀 보려고 컵을 들었다.

“어저씨, 우유 한컵만 주세요.”

하면서 나는 컵을 내밀었다.

“응, 안에 들어가서 냉장고 안의 우유 먹거라.”

“어, 아저씨 지금 짜신 우유 주시면 되잖아요.”

“어허허……. 우유는 소젖을 짠 다음에도 살균하고 검사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마시는 우유가 된단다.”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저 우유는 소젖을 짜고 바로 우유팩에 담아 마시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소젖을 짠 다음에 우유를 이 통에 담아 공장으로 운송되어서 통을 씻고 잘 걸러서 저장 탱크에 보관했다가 살균해서 병이나 팩에 넣어 날짜를 붙여 배달하지. 공장 집으로 가기도 하고, 가게로도 간단다.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치는 만큼 많은 사람의 땀과 노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유 한방울이라도 떨어뜨리지 말고, 알았지?”

그날, 저녁이었다.

“아, 더워. 저녁인데도 덥네.”

부채질을 하며 들어온 현선이 언니가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셨다. 자그마치 1000ml 인데 거의 다 마신 것이었다.

“와! 언니. 우유 굉장히 좋아하나봐.”

“응, 나는 어렸을때부터 우유를 좋아해서 무척 많이 먹었다단다.”

옆에 계시던 어머니 친구분께서,

“그래. 언니는 우유를 많이 먹어서 이렇게 키도 크고 까만얼굴도 뽀아졌다단다. 건강해 보이지? 헤란이도 우유 많이 먹어라.”

하고 흐뭇하신 듯 말씀하셨다.

정말 우유는 효력이 큰지 언니의 국민학교 때 사진을 보니 나처럼 키가 작고 얼굴도 까만데다 깡말랐는데 이제는 참 예쁜 처녀가 되었다.

“우유는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갖추어 있어서 완전식품이라 한단다. 그만큼 건강에 좋고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무척 좋단다.”

아저씨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가 솔깃했다.

이 여행은 나에게 우유의 고마움을 일깨워 주었고, 우유를 많이 마셔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었다.

여행을 계기로 조금씩 조금씩 맛을 들여 매일 2~3개씩 우유를 먹은 지 벌써 2년.

편식하지 않고 음식을 골고루 먹게 되었고, 키도 많이 자랐다. 또 무척 건강해졌고,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이라고 무슨 일이든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우유대장”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우유를 많이 마신다.

앞으로도 우유대장답게 우유를 많이 마시고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겠다.

통상

나의 영원한 벗 우유야!

윤 소 열  
(전주서원국교 6-11)

지난 일요일 버스를 타고 할머니댁에 갔었다.

들판에는 벼가 누렇게 익어 고개를 숙이고 있고, 길가에는 코스모스가 활짝 웃으며, 바람결에 한들한들 우리들을 반겨주고 있다.

나의 옆에는 젊은 아줌마가 아기를 안고서 젖을 먹이며 사랑스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다. 아기는 웅알거리며 젖을 먹으면서 다른 쪽 젖을 손으로 감싸고 만지작거린다. 나는 그 아기가 너무나 귀여워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집에 돌아 와 저녁밥을 먹으며 낮에 보았던 광경을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엄마께서는

“애야, 너는 어디 다니면서 젖소를 보면 크게 고개숙여 인사하려무나.”

“엄마가 너를 낳기는 했지만 너는 소젖을 먹고 자랐으니까.”

라고 하시며, 내가 자라온 과정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다.

우리 엄마는 몸이 무척 약하시다. 그래 젖이 거의 나오지 않아 나는 태어나서부터 젖대신 우유를 먹고 자랐다고 한다. 우유병을 깨끗이 소독하여 한 병 가득히 넣어 먹이면 배가 볼록 나오도록 빨아 마시고는 새록새록 잠이 든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지금도 나의 아기 때의 사진을 보면 정말 탐스러워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지금은 너무 깡말라 별명이 “멸치”라고 붙여졌는데...

나는 무척 편식을 한다. 계란 후라이와 고기만 좋아하니 큰 문제라고 부모님께서서는 항상 걱정하신다. 그동안에는 학교에서 사먹는 우유도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2년전 어느 무더운 여름날 밤에 갑작스럽게 몸에 열이 오르고, 눈알이 빠지려 하여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었다. 그 때 부모님께서서는 무척 걱정하시며 잠을 주무시지 않고, 번갈아가며 수건에 찬물을 묻혀 온 몸을 감싸서 식혔지만, 열은 내리지 않았다. 다음날 새벽에 종합병원 응급실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 “유사장티푸스”라고 하여, 바로 입원을 시키고 팔에 링게르주사기를 꽂기도 하고, 약도 시간 맞추어 먹으며, 열심히 치료를 받았다.

그 때 엄마 아빠는 나의 곁을 떠나지 않고 밤낮없이 지켜보시며, 체온을 재어보시고 여러가지로 돌보아 주시던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나 고마운 생각이 든다. 전에는 조금 심하게 운동하면 코피가 자주 났었다.

엄마께서는 침대에 누워있는 나의 손을 꼬

옥 잡으시고

“소열아! 바로 네가 편식을 하니 몸이 허약하고 그러니 병균이 침입하여 너를 그렇게 괴롭힌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음식을 가리지 말고 골고루 먹고, 매일매일 꼭 우유를 마시도록 해라. 너의 건강을 위해서...”

“예, 알겠어요. 꼭 그렇게 할게요.”

나는 고마우신 엄마를 바라보며 힘있게 말씀드렸다.

며칠 만에 퇴원하여 학교를 다니면서 건강의 중요함을 깊이 깨달았다. 그 뒤부터 나는 음식을 고루고루 먹으려 마음먹었지만 그렇게 쉽지 않았다. 그러나 우유만큼은 하루에 두 개씩 신청하여 지금까지 매일 빠지지 않고 먹고 있다. 일요일이나 방학 때는 엄마께서 항상 가까운 슈퍼에서 1000ml짜리 우유를 사다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기에 물 대신 우유를 마시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나의 체질은 완전히 바뀌었다. 병원이나 약국과는 거리가 먼 아주 건강한 소년으로 자라고 있으며, 운동을 할 때도 남보다 덜지치고, 몸 구석구석에 생기가 넘치는 것 같다.

부모님께서서는 건강한 나를 무척 귀여워 해주신다. 나를 지극한 정성으로 보살피 주시는 부모님이 무척 고맙다. 또한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든 것은 우유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

그러고 보니 나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유의 덕을 톡톡히 보며 자란 소년이다. 그 래 다시 한번 우유에게 깊이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앞으로도 나는 우유를 나의 가장 가까운 벗으로 알고 사랑할테니 너는 내 몸속에 들어와 큰 힘을 내 주기를 바란다. 나는 고마운 우유를 나의 영원한 친구로 삼아 일생을 함께 하련다.

동상

## 고마운 우유

최 미 희  
(서울동자국교 5-2)

지난 3학년때였다. 어머니께서  
“미희야, 오빠 일어나면 같이 밥 먹고 학교  
가거라.”

우유 배달 나가시는 어머니의 바쁜 음성이  
귀에 쟁쟁했다. 나는

“네.”

라고 대답하고

“10분만 더 자야지.”

하며 다시 자리에 누웠다. 얼마를 잤을까?  
오빠가 툭툭 거리며 깨우는 소리에 일어나 보  
니 9시가 조금 넘었다.

“잠꾸러기 오빠가 먼저 일어나서 깨우다니  
...”

아침밥은 커녕 우유도 마시지 못한채 오빠  
와 나는 방문을 잠그고 달리기 시작하였다.  
교문은 굳게 잠기고 후문으로 들어갔다.

살금살금 교실문을 여는데 선생님께서

“최 미희, 왜 늦었어?”

하고 물으셨다. 나는 아무 대답도 못한채  
고개만 숙이고 있다.

“자리에 앉아”

하시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내자리에 앉  
았다. 눈물이 앞을 가렸다. 그리고 다른 직장  
에 다녀도 되는데 우유배달 나가시는 엄마가  
야속했다. 저녁때 나는 집에 오신 어머니께

“엄마, 우유배달 하지 말고 다른 회사 다녀  
요. 아침에 지각했어요.”

하였더니 어머니께서

“엄마가 우유배달 하니까 너희들 우유도 실  
컷 마시고, 피아노 학원도 보내 주지, 엄마가  
열심히 저축해야 아빠버는 돈이 모인단다.”  
하셨다. 오빠와 나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키  
가 작아서 맨 앞에 앉는다. 어머니께서는 그  
런 오빠와 나를 보시고

“낮에 물 마시고 싶으면 우유를 마셔라.”

하셨다. 나는 생각한다. 어머니의 따뜻한 사  
랑과 고생이 오빠와 나에게 몸으로는 살찌우  
고, 우리 가정을 부유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  
래서 학교에서 오면 방청소도 하고 어머니께  
서 오실때까지 숙제하며 공부하고 있었다. 요  
즈음은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하시는 공장에  
나가신다. 이제는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 공  
장 가까운 슈퍼에서 시원한 우유 한개씩을 사  
서 드리고 공장 청소를 하고 온다고 하신다.  
어머니는 저녁에 우유를 네개씩 사셔도 어머  
니 뭇은 늘 냉장고 속에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몸이 약한 오빠 뭇이 된다. 오랫동안 오  
빠를 보는 친척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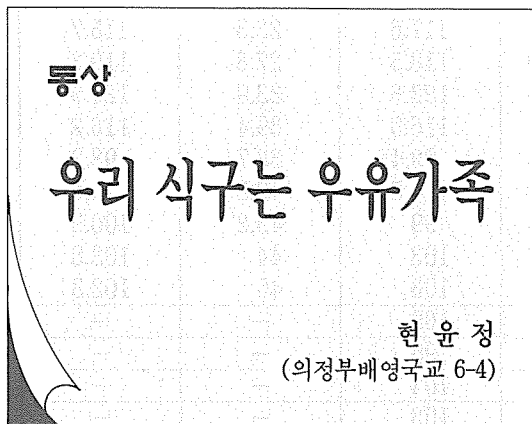
“장희는 안 클것 같더니, 몰라보게 컸네.”

하신다 어머니는 빙그레 웃기만 하는데 나  
는 그 비밀을 안다. 우유 덕분이다. 어머니 뭇  
까지 마셔대는 오빠가 나보다 많이 컸다. 나  
는 지난 2년동안 어머니께서 우유 배달 할때  
가 그림다. 그때는 냉장고에 언제나 우유가  
밀려 있었다. 나는 아직도 맨 앞에 앉지만 무  
엇이든 골고루 먹고, 우유는 집에서도 학교에  
서도 열심히 마신다. 그전에 어머니가 우유  
배달 할때, 엄마가 안계신 내 친구 광숙이가  
오면 나는 냉장고에서 우유 한컵씩을 따라 주  
었는데 요즈음은 그러질 못한다. 지나간 일이  
지만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

“미희가 좋은 일을 했구나! 우리도 어렵지  
만 우리보다 더 가난한 친구를 돕는 것은 좋  
은 일이야.” 하셨다.

내 친구 광숙이는 도시락을 못 싸온다. 어  
머니께서는 빵한개와 우유 한개씩 사주실때가  
많다. 나는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들도 모두  
우유를 마실 수 있기를, 완전 제품인 우유를  
마시고 건강한 생활할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바란다. 내친구 광숙이를 보면 나는 우유를 함께 마셔야 기분이 좋다. 반컵씩 마셔도 한 컵씩 마시는 기분이다.



우리 가족은 우유를 매우 좋아한다. 매일 200ml이상의 우유를 먹으며 건강을 유지한다.

어렸을때 엄마 젖이 모자라서 모유대신 우유를 많이 먹었다고 하는 나는, 우유 박사라 할 정도로 우유병을 꼭 가지고 다녔다고 한다. 어릴때 우유를 많이 먹어서 인지, 지금은 튼튼한 체격과 건강한 몸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우유를 마실때면 아빠는

“우유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고루 갖춘 식품이다. 우리가 밥을 먹을때 농촌에서 곡식을 추수할때까지 힘쓰신 농부들에게 고마움을 갖듯이, 이 우유를 먹을때도 목장에서 젖소를 기르시며, 이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힘쓰신 분들의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시는 말씀처럼 우유가 생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젖소에게 사료를 주며, 정성껏 보살피기 때문에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만큼 우리가 먹는 우유가 낙농가들의 값진 땀의 결실이라는 것을 아빠의 말씀을 통해 느낄수 있었고, 우유를 먹을때면 우리가 비용

을 내고 사먹는 것이라도 그 분들에게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 국민 식생활도 개선되어 갖가지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는 살아있는 식품이고, 방부제나 색소등의 약품이 섞인 청량 음료보다 단백질이나 칼슘이 함유된 우유를 섭취하는 것이 보다 좋은것 같다고 생각한다.

쇠고기나 돼지고기와 같은 육식종류만 좋아해서 똥똥했던 나의 오빠도 우유를 많이 먹어서 키도 많이 커지고, 몸의 근육도 더 단단해졌다고 한다.

엄마께서도  
“너희들 같이 한창 자랄때는 혈액과 근육이 되는 단백질과 뼈와 이가 되는 칼슘등을 많이 먹어야 하는데 우유는 그런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는 대표적인 식품이며, 소화 흡수도 잘되어 적은 양으로도 힘을 낼수 있는 아주 좋은 식품이란단.”

하시며 우유를 권하시곤 한다. 이러한 까닭은 우리 가족이 모두 우유를 좋아하고 또한 우유 가족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순하고 티없이 맑은 표현을 쓸때에 우유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처럼 하얗고 맑은 마음을 키우고 건강하며 즐거운 가정 생활을 누리기 위해 우리 우유 가족들은 앞으로도 계속 우유를 열심히 마시도록 노력해야 겠다고 다짐한다.